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귀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상화 및 개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정치발전과 국회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관심과 의견제시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추진계획

지적한 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문제 등에 대한 각 당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선 윤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단에게도 윤리특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국회 윤리특위 개선 등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 역사적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취임사에서든 천명했다시피,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개

혁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회 윤리특위의 개선 및 활동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회개혁특위가 지난 6월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욱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국회운영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권고하겠습니다. 각 당에서 이미 윤리특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성과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 11. 30

국회의장 김 원 기